

사순절을 묵상하며 29

- 만질 수 있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누구인가: 불의한 재판관 여인 -

2020년 9월 27일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본문의 비유에는 ‘재판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말할 기회를 세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신명기 1:17).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채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3절)라며 호소하지만, 재판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여인이 ‘존재’가 아니라 ‘과부’로 호명됨으로 그의 일상은 차별과 낙인, 편견, 폭력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부는 사람됨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는 온전한 ‘나’로서 살지 못한 채 ‘과부’의 위치에서 과부로만 살아가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과부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지만, 자신이 당한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끈질긴 탄원을 이어갑니다. 계속되는 과부의 인내와 끈질김으로 인해 재판관은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자신에게 돌아올 귀찮음과 곤란함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혹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재판관의 판결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과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과부의 뜻은 하나님의 정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재판관의 이기적인 의도조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과부의 투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말은 가진 자의 언어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유지되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것, 불의에 대해 단호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곡된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만질 수 없는 평화를 ‘만질 수 있는 평화’로 만드는 것은 재판관이 아니라 과부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묵상을 위한 짧은 질문

오늘날 과부와 같이 세상의 편견과 관습이 만들어 놓은 자리를 거부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만질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낸 존재들과 사건을 기억하고 찾아봅시다.¹⁾

1) 책 : 이 여인을 보라2 (사순절 묵상집) / 출판사 : 평화교회연구소 / 출간일 : 2020.02.10 / 페이지 62-63